Ewha Global Excellence Program

미술사학과×사학과 융합연구단

「텍스트와 이미지의 융합

: 미디어 전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미술사학과 학술연구사업 3차 보고서

워크숍: 알렉산더 알베로의『틈새들 *Interstices*』함께 읽기

-동시대 미술에서의 문화횡단

강연: 동시대 미술과 문화 횡단

(알렉산더 알베로, 컬럼비아 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2026. 04. 17.

책임 교원: 최종철 교수

워크숍 보고서

워크숍 주제	알렉산더 알베로의『틈새들 *Interstices*』함께 읽기: 동시대 미술에서의 문화 횡단
지도 교수	최종철 교수
일정	2026.03.20.-03.27.
장소	학관 108호, 512호
참여자	유진영(232HAG21)-팀장, 최은총(212HAG45), 이지수(252HAG18), 박소영(252HAG33), 박세은(262HAG08), 변규리(262HAG12).
활동 내용	**1차 워크숍 (학관 108호, 3월 20일, 19:00 - 22:00)** 1) 참여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젝트 조사, 자료 정리, 발표 담당 등 업무를 배분하였다. 2) 초청 강사의 연구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주제 설정을 위해 토론했다. 선정된 참고문헌을 읽고, 초청 강사가 정의하는 문화횡단(transculturaion)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워크숍 (학관 512호, 3월 27일, 19:00 - 22:00)** 1) 1차 워크숍에서 토의했던 문화횡단의 주제에서 나아가, 2장에서 소개된 다양한 이론을 통해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저자가 저서에서 제시한 동시대 미술과 문화횡단의 연결점에 대해 토의하였고, 저자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동시대 미술의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2) 1차 워크숍과 2차 워크숍에 진행됐던 발표를 토대로 저자의 저서『틈새들 *Interstices*』의 서론, 1장, 2장을 간략히 요약 및 정리하였다. 3) 저자의 논지 파악 이후, 강연 당일 초청 강사와 청중들에게 공유할 질문을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팀원들끼리 모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참고 문헌	Alberro, Alexander. *Interstices : Negotiations at Contemporary Art's Boundarie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2025. → 알렉산더 알베로는 탈식민주의(decolonial) 이론과 문화횡단(transculturaion)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예술적 틀의 이상과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교류들을 탐구한다. 단일한 예술 세계나 글로벌 현대 미술이라는 개념에 저항하며, 알베로는 서구 미술의 헤게모니적 존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구한다. 그는 서구 미술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각각 고유한 예술적 서사와 관습을 지닌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적 형상들을 인식하고, 서구 미술의 변방에서 혁신과 변혁을 키워내는 복잡한 협상 과정을 조명

	한다. 알베로가 주목하고 있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1) 틈새(intertices) 두 개의 공간이 접면하는 지역의 예시로 국경선이 있으며, 이 구역을 알베로는 intertice, margin, boundary 등으로 지칭한다. 특히 틈새(intertice) 개념은 마르크스, 알튀세르가 논의했던 개념으로, 마르크스는 이 구역은 자본주의의 빈 공간으로, 이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 번역(translation) 알베로는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번역'에 주목한다. 그는 발터 벤야민의 번역 개념을 빌려온다. 발터 벤야민은 완벽한 하나의 원어는 없기 때문에 번역의 의미에 주목한다. 알베로는 이러한 벤야민의 번역 정의를 가져와 다양한 주체들의 번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에 대한 예시로 동시대미술과 전시를 분석한다. 그는 비주류 미술들이 서구의 주류 미술과 자국의 정체성 사이의 경계에서 번역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체 평가	최종철 교수의 지도하에 워크숍은 총 2회 진행되었으며 6명의 팀원이 참가했다. 1차 워크숍에서 미리 선정된 저서의 서론과 1장을 읽고, 초청 강사가 정의하는 문화횡단(transculturaion)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서 2차 워크숍은 2장을 읽고 저자가 제시하는 동시대 미술과 문화횡단의 연결점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고문헌은 번역 주제에 관해 명확한 관점을 제공했으며, 문화횡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2회의 워크숍은 토론, 정리, 질문 선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워크숍과 같은 경우 초청 강사와 지도 교수에 의해 참고 문헌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참고 문헌 조사 및 선정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을 사료된다.

부록1. 워크숍 증빙 자료

지도 교수	최종철 교수
참여자	유진영(232HAG21)-팀장, 최은총(212HAG45), 이지수(252HAG18), 박소영(252HAG33), 박세은(262HAG08), 변규리(262HAG12).

1) 발제문

본 워크샵은 2번의 횟수를 거치며 알렉산더 알베로의 『틈새들 *Interstices*』의 서론, 1장과 2장을 읽으며 진행하였다. 따라서 발제문 또한 순서대로 전개하였음을 밝힌다.

1) 서론: 동시대 미술 탈지방화하기 (Deprovincializing Contemporary Art)

이 책은 탈식민 이론(decolonial theory)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동시대 미술을 단일한 보편적 체계가 아닌 복수의 예술 프레임워크(art frameworks) 간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았다. 저자는 서구 미술이 인식론적 지배를 확장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등하게 타당한 여러 예술 형성체가 공존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의 핵심 개념인 예술 프레임워크는 행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부여하며, 공유된 의미들의 배열을 형성한다. 동시에 이는 예술가, 큐레이터, 대중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실천을 조율하고 규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탈중심화된다. 이때 행위자들은 차이를 협상해야 하며, 새로운 형식과 주체성을 생성한다. 저자는 이러한 지점을 “접촉 지대(contact zones)”로 정의하며, 그곳에서 문제시되는 이슈와 조건들과 작품과 전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실천들이 드러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틈새적(interstitial) 관점에서 예술을 고찰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는 서로 다른 이상과 가치들이 순환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위계화하지 않는 방식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경계 지대에서의 실천에 대한 핵심은 지배적 형성체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지역 문화의 코드를 포기하지 않는 실천이다. 이러한 작업은 서구 미술의 프로토콜을 자신의 지역적 구성의 실천과 이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굴절시키며, 양자를 조정하거나 변형한다. 이러한 실천은 “문화횡단적”이며, 끊임없이 차이들 사이에서 협상하고 번역하는 작업이다. 또한 이는 과정적이며 변동적으로, 시간에 걸쳐 확장되고, 개방적이며, 연구 기반적인 과정으로 전환된다. 프레임워크 사이의 접촉 지대야말로 오늘날 가장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작품과 전시가 생산되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탈식민적 정식화(decolonizing formulations)”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천은 서구 예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인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드러낸다. 이는 서구 미술을 하나의 에피스테메

(episteme)로 상대화하며, 그 보편성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틈새들(interstices)”을 명확히 구획된 실체들 사이의 실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경계는 서구 미술의 철저히 우연적인 현실이 드러나는 “한계 지대”이며, 동시대 미술의 핵심적 분석 지점이다.

1장: 순환(Circulation)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과 정보, 노동의 이동을 확산시키며 전지구적 공간을 재편했다. 이때 서구 자본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와 미술의 생산 및 유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구 미술 제도는 활동 범위를 비서구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미술 중심지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의 미술들을 새로운 시공간적 결합 속으로 통합했다. 이것은 문화가 포용적이고 평등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성을 재현하는 방법 및 예술가들과 작품들, 그리고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같은 세계적 제도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탐구하면서 문화들 사이의 경계 지대에서 전개되는 긴장된 현실들 직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비서구 미술의 내적 복합성과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 동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틈새 공간(interstitial spaces)”이라는 제3의 관점을 제안한다. 이곳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이 충돌하고 협상하는, 즉 문화횡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완전한 통합도, 완전한 분리도 아닌 대위법적인 관계를 표상한다. 이때 중요한 메커니즘은 “번역(translation)”이다. 번역 없이는 문화적 차이를 매개할 수 없으며, 그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없다.
저자는 주변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사례를 통해 논지를 다져나간다. 리카르도 바스바움(Ricardo Basbaum, 1961-)의 작업은 열린 구조와 참여적 방식을 통해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문화 간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토마스 히르슈호른(Thomas Hirschhorn, 1957-)의 프로젝트는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만, 서구 미술 제도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슈전(Yin Xiuzhen, 1963-)의 <*Portable Cities*>는 이동성과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시각화하며, 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과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티아고 시에라(Santiago Sierra, 1966-)와 라크스 미디어 컬렉티브(Raqs Media Collective)는 경계들의 모순과 복합성을 동원하고, 법적 담론들이 그것을 구성하는 수행적 행위들만큼 가변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기예르모 갈린도(Guillermo Galindo, 1960-)의 사운드 작품은 이주를 겪고 살아남았거나 그 횡단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멀티플

리시티(Multiplicity)는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간극을 환기하는 설치 작업들을 제작하며 경계 횡단과 이동성에 대한 트라우마들을 재현한다. 더불어 인터넷 네트워크를 여전히 비대칭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다. 저자는 네트워크 문화의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예술 체계들을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짚어내며 사실상 인터넷이 여전히 비대칭적인 권력과 영향력의 사례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1장은 동시대 미술이 글로벌과 로컬의 이분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긴장의 장이며, 장소 역시 고정된 배경이라기보다 다양한 관계가 교차하는 구성물이라는 점을 다룬다. 이 글을 통해 동시대 미술은 틈새 공간에서 번역과 협상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관계적 실천임을 알 수 있다.

2장: 차이를 번역하기 (Translating Difference)
지난 1차 워크숍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시대 미술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팽창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경우를 벗어나,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 끊임없이 협상하며 공존하는 경우를 살피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장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저자가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Homi K. Bhabha, 1949-)의 혼종성(Hybridity) 개념을 논하는 대목이다. 이때 그는 언어학자 마이클 크로닌(Michael Cronin, 1960-), 문학 이론가 아이자즈 아흐마드(Aijaz Ahmad, 1941-2022), 미술가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1966-) 등의 혼종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인용한다. 이를 통해 알베로는 혼종성이 상호성을 강조하며 정체성 구성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과소평가하고 식민주의가 지속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저자는 인류학자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 1881-1969)의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개념을 혼종성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도 둘 중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고 협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횡단은 고정된 정체성을 거부하며, 그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1995년과 1997년에 열린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Johannesburg Biennale)를 지역 사회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사례로서 검토한다. 이어서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활동하는 트레이시 로즈(Tracey Rose, 1974-)와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이토 바라다(Yto Barrada, 1971-), 콜롬비아 출신의 미술가 도리스 살세도(Doris Salcedo, 1958-)의 작업을 문화 횡단의 대표 사례로 분석한다. 알베로는 이들이 지역적 문제나 관습을 서구의 틀(Western Framework)로 번역하되, 그 지역적 관심이나 감수성을 지우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저자가 제안하는 문화횡단과 사이 공간 개념은 동시대 미술의 복잡한 지형도를 파악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세심하게 읽어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준다. 이에 2차 워크숍에서는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 문화횡단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 참고 문헌

Alberro, Alexander. *Interstices : Negotiations at Contemporary Art's Boundarie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2025.

Bhabha, Homi K."The Third Space."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and Difference*, edited by Jonathan Rutherford, 63-67.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0.

Cronin, Michael. Translation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2007.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edited by Jonathan Rutherford, 222-37. London: Lawrence and Wishart, 2001.

Kelly, Stephen. "The Island that is Nowhere: or, Cultural Translation-a Utopian Project?" In *Betwixt and Between: Place and Cultural Translation*, edited by Stephen Kelly and David Johnson, 2-20. Newcastle-upon-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09.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2014.

Moten, Fred. Black and Blur: Consent Not to Be a Single Be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7.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4.

Steyerl, Hito. "In Defense of the Poor Image." In *Hito Steyerl Jenseits der Repräsentation / Beyond Representation: Essays 1999-2009*, edited by Marius Babias, 147-53. Berlin: NBK, 2016.

Terranova, Tiziana. *Network Culture: Politicsfor the Information Age*. London: Pluto Press, 2004.

3) 워크숍 증빙 사진

1. 오프라인 (2026년 3월 20일, 학관 108호)



2. 오프라인 (2026년 3월 27일, 학관 512호)



3. 2026년 4월 3일 강연 당일, 워크숍 일원과 알베로 교수



강연 보고서

초청 강사	알렉산더 알베로 컬럼비아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강연 제목	동시대 미술과 문화 횡단 (Contemporary Art and Transculturation)		
일시 및 장소	2026년 4월 3일	장소	학관 108호
참석인원	61명		
강연 내용	이번 강연은 동시대 미술을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문화 횡단(transculturation)’의 유효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 혼합이나 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다양한 권력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하며 공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문화는 하나로 합쳐져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요소들이 상호작용 속에서도 그 차이를 유지한 채 함께 얽히는 ‘직조’의 구조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식민주의, 이주, 세계화와 같은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동시대 미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강연은 마리아 막달레나 캄포스-폰스(Maria Magdalena Campos-Pons, 1959-)의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 횡단의 미학을 설명한다. 그는 아프리카, 중국, 카리브해의 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가계 서사와 결합하여 사진, 설치, 퍼포먼스를 통해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탐구한다. 특히 설탕 생산과 노예 노동, 중국인 계약 노동의 역사 등을 유리, 직물, 영상 등의 매체로 재현하며,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느껴지는 역사’를 구축한다. 이러한 작업은 서로 다른 문화적 기호들이 단순히 병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물질적 차원에서 교차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갈라 포라스-김(Gala Porras-Kim, 1984-)의 작업은 박물관 제도와 분류 체계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문화횡단을 드러낸다. 그녀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수집된 유물들이 박물관 안에서 어떻게 재분류되고 의미가 재구성되는지를 드로잉으로 시각화하며, 문화적 가치가 본질이 아닌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문화 간 관계가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권력과 제도의 작동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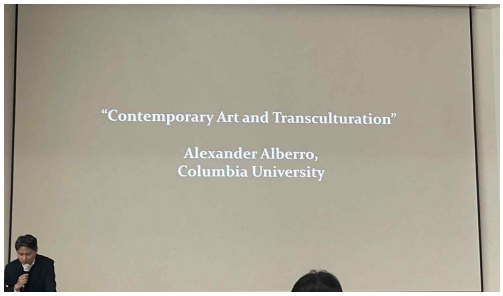
	최원준(Che Onejoon, 1979)의 작업 역시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통해 문화횡단적 시각을 확장한다. 그는 냉전, 이주, 도시 공간 등의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미 다양한 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드러내며, 국가 중심적 서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특히 아프리카 이주민 공동체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체성 재구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연은 문화횡단을 통해 문화 간 관계를 '동등한 혼합'이 아닌 '비대칭적 협상'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다문화주의나 글로벌화 담론이 간과해온 권력 구조를 드러내며, 보다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대 미술을 읽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질의 및 답변	Q.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의 개념과 연구에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A. 문화횡단은 기존의 혼종성(Hybridity) 개념과 달리, 서로 다른 문화가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유지한 채 함께 얽히는 '직조'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문화 간 관계를 결과가 아닌 지속적인 협상 과정으로 보며, 양측 모두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의 일방적 민족지 모델을 비판한다. Q. 현재 한국에서의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A. 연구자는 197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서구-비서구 관계를 넘어 한국-아프리카, 남북한, 동아시아-남미 등 비서구 간 문화적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미술사 서술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Q. 작품에서 '불안'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불안의 주제가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A. 최원준의 작업을 통해, 군사화와 전쟁의 지속적 가능성에서 비롯된 불안이 일상 공간의 미세한 흔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롤랑 바르트의 '푼크툼'처럼 갑작스럽게 감각되는 요소로 작동한다. 나아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과 이주로 인한 구조 변화, 그리고 '한국성'의 재정의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불안으로 확장된다.

	Q. 경계는 어떻게 주체성을 생성하는가? A.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와 만나는 경계에서의 협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 경계는 단순한 접촉 지점이 아니라 선택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주체의 행위성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Q.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전환과 조언은 무엇인가? A. 개념미술 연구에서 출발해 '글로벌 개념주의'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개념미술과 개념주의(활동가적 실천)의 구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연구자는 비판과 도전을 학문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기존 틀을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관계와 주제를 탐구할 것을 조언한다.
자체 평가	본 강연은 문화횡단 개념을 바탕으로 해당 개념이 적용된 세 작가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작품 설명을 통해 혼종성이 아닌 협상의 과정으로서의 문화횡단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대 미술 연구에 이론적 확장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의 미술사 연구자로서 비서구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할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강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추상적인 이론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보다, 구체적인 사례 설명을 통해 심화된 이해를 꾀할 수 있었다.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에서는 한국 사회의 분단 상황, 출산율 문제, 이주와 정체성 문제 등 현재 한국 이슈와 연결된 논의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종철 교수님의 논의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개입을 통한 진행으로 해당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맥락을 더 잘 파악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강연에서는 워크숍의 주제인,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이 적절히 한국 작가 사례 적용을 통해 다루어졌고, 강의 이후 질문을 통해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례와 논의가 풍부하게 제시된 만큼, 이들 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전체적인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부록2. 강연 증빙 자료

초청 강사	알렉산더 알베로 컬럼비아 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강연 제목	동시대 미술과 문화 횡단 (Contemporary Art and Transculturation)

1.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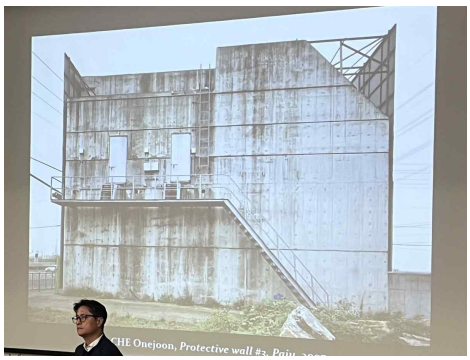
최종철 교수의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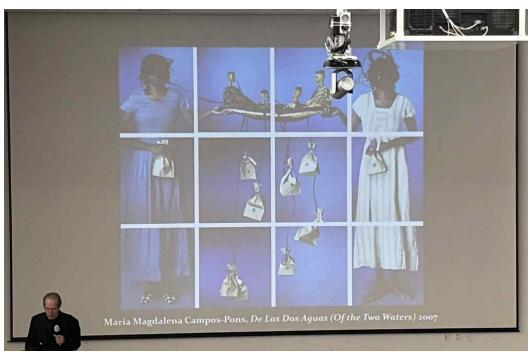
Gala Porras-Kim, National Treasures 530(2023).



Maria Magdalena Campos-Pons, Spoken Softly with Mama(1998)의 일부.



CHE Onejoon, Protective Wall Ⅱ (2007).



Maria Magdalena Campos-Pons, De Las Dos Aguas (2007).



질의 응답

2. 강연 증빙 사진 (특강 포스터 / 특강 현장)







3. 강연 참석자 명부

-